

# 공부해서 남 주자!

손봉호 (대표주간)



한동대학교 설립을 이끌고 초대 총장직을 역임한 김영길 박사는 “공부하여 남 주자!”란 구호로 유명하다. 지금은 자주 들리지 않지만 한 때는 한국의 부모, 교사, 친척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독려할 때 입버릇처럼 한 말이 “공부해서 남 주나?”였다. 김 총장은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특히 한국 학생들은 모두 자신을 위하여 공부한다. 그런데 돈은 벌어도 도둑, 사기꾼 등 남이 가져갈 수 있고 명예와 권력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아무도 훔치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지식을 얻는 공부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인 오늘날에는 더 더욱 그러하다.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도 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지

식기반사회가 이룩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도 바로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고 개발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천연자원, 영토, 인구, 기후 등 자연조건이 사회의 부와 힘을 생산해 주는 자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인적자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한다. 인적자원도 과거에는 육체노동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지식과 기술이 핵심이다. 그런데 지식과 기술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은 것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열이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육의 열매는 “남 주지 않고” 내가 독점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그 부스

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네덜란드 의사 만더비어(B. Mandeville)가 말한 것처럼 “사적인 악이 공적인 이익”(private vices, public benefits)을 가져 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부스러기로 사회 전체가 풍요롭게 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그 가장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질서가 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삶을 편리하게 하며 여유 시간을 허용하여 예술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과 풍요가 과연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가? 물론 굶주림, 질병, 혹독한 추위와 더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직도 인류의 10분 1 정도는 그런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빈곤에서 해방된 10분의 9 에게도 계속되는 발전이 행복을 그만큼 더 증진하고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는가?

“인적자원”이란 말을 철학자 칸트가 들었으면 노발대발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정언명령』(定言命令)에서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만 삼아야지 결코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원’이란 말은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자료 혹은 동력이므로 인적자원이란 사람을 경제적 가치의 생산 원료 혹은 도구로 취급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이 존엄한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생산하는 인간(homo faber),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에 불과한 존재로 격화된 것이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

---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아무도 훔치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지  
식을 얻는 공부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다.

“남 안 주기” 위하여  
그 어느나라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경쟁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서  
한국인 대부분이 불행해지고 만 것이다.

---

살게 된 한국인은 과연 행복해졌는가? 미국의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와 OECD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부탄,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낮다. “남 안 주기” 위하여 그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경쟁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서 한국인 대부분이 불행해지고 만 것이다.

최근 하버드 대학,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UBC),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소(NIH), 케이스 웨스턴 리저부(Case Western Reserve) 대학 등은 소득의 크기보다 그 소득을 어떻게 쓰는가가 행복감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와 UBC의 2016년 공동연구에서 일반 시민 46명에게 5불 혹은 20불이 든 돈 봉투를 무작위로 나누어 준 다음 참가자 절반에게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나머지 절반에게는 남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결과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남을 위해 쓴 사

공부해서 줄 “남”은 바로 약한 이웃이다.  
그리고 “남 주기 위한 공부”는  
사랑일 뿐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논리보다  
“공부해서 남 주자!”의 논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삶을 의미 있게 한다.

람의 행복감이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들의 행복감 보다 높아졌음을 발견했다 한다. 일반적으로 투명성과 기부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말해준다.

스웨덴 신학자 니그렌(A. Nygren)에 의하면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사랑”(ego-centric love) 혹은 “욕망의 사랑”(love of desire)이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논리는 “에로스의 질서”를 생산했다. 신학자 네일(S. Neil)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를 “사람의 의지가 타인의 영원한 행복(well-being)을 꾸준히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아가페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 그 목적이 있다. 바로 “공부해서 남 주자!”의 논리다. 에로스 사랑이 지배하는 자연인의 감정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가페를 위해서는 “의지”가 동원되어야 하고, 의지가 작동하려면 명령이 주어져야 한다. 사람을 그대로 두면 에로스에 의하여 행동하므로 성경은 아가페를 ‘명령’하는 것이다.

성경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타인(이웃)은 “모든 사람”이지만 특히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등 “약한 사람”들이다. 약한 이웃을 돕는 것은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약하게 되는 것은 선천적인 원인이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불의(injustice)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의의 피해자를 돕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의 정의는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예일대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 교수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와 정의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부해서 줄 “남”은 바로 약한 이웃이다. 그리고 “남 주기 위한 공부”는 사랑일 뿐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아가페는 결코 자신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논리보다 “공부해서 남 주자!”의 논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삶을 의미 있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